

2026. 5. 4

소비재/플랫폼 Weekly

LG생활건강, 회복의 첫 단추는 끼웠다

Analyst 오린아 _ 유통/화장품 lina.oh@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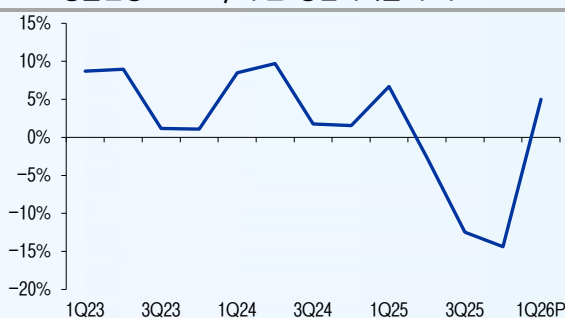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 LG생활건강, 1Q26 실적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 영업이익 1,078억원 기록
- ✓ 화장품: 상반기까지는 면세 물량 조정 지속 및 마케팅 투자로 비용 부담 존재
- ✓ 생활용품, 음료: 중등전쟁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부담 가능성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LG 생활건강 Beauty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LG생활건강,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LG 생활건강 Beauty 1Q26 주요 브랜드별 매출 비중



자료: LG생활건강, LS증권 리서치센터

1Q26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했지만...

LG생활건강의 1Q26 연결 기준 매출액은 YoY 7.1% 감소한 1조 5,766억원, 영업이익은 YoY 24.3% 감소한 1,078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 실적 상회의 주 요인은 면세 부문과 중국 법인의 손익 개선 영향. 화장품 사업 매출액은 YoY 12.3% 감소한 1조 5,766억원, 영업이익은 YoY 43.2% 감소한 386억원을 기록. 면세 물량 조정 지속에도 예상대비 매출액이 양호했으며, 고정비 절감 효과 등으로 이익이 개선. 중국 또한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 운영으로 예상 대비 빠르게 흑자 전환. 생활용품 사업 매출액은 YoY 0.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YoY 7.4% 감소한 254억원을 기록 (동일 기준). 참고로 닥터그루트, 유시물, 피지오겔, 도미나스, 에이본 등의 브랜드가 화장품 사업부로 이관. 음료 사업부 또한 원가 부담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YoY 6.8% 감소한 438억원을 기록

아직은 이르기 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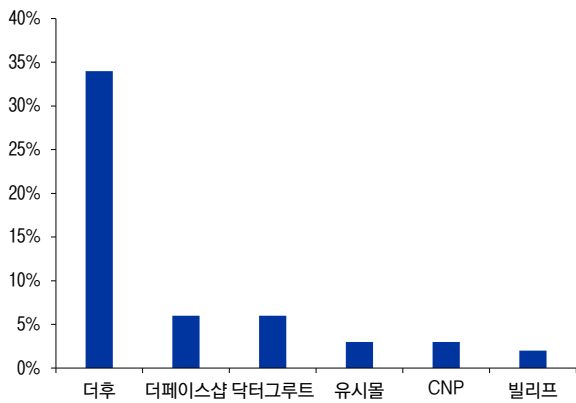
이번 실적만으로 LG생활건강의 구조적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 1분기 호실적은 비용 효율화와 낮아진 기대치에 기반한 결과로 판단되기 때문. 상반기까지는 면세 물량 조정이 지속될 것, 이에 2분기에도 면세 매출액은 두자릿수 역성장이 예상. 중국 또한 신제품 출시 및 618 행사 대응 관련 마케팅 확대가 예상. 북미는 닥터그루트 성과가 긍정적이나, 인수 법인 매출 감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 1)중국에서의 Whoo 브랜드 충성도 지속력, 2)이에 따른 면세 채널에서의 꾸준한 수요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3)북미 사업 수익성 개선 여부가 중요한 지표. 상대적으로 K뷰티 업체들의 경쟁이 덜한 헤어 카테고리에서 닥터그루트가 강세라는 점은 긍정적, 프리미엄 헤어케어 중심의 북미 지역 확장은 향후 화장품 사업부 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

회복의 첫 단추는 끼웠다

1Q26 실적: 시장 기대치 상회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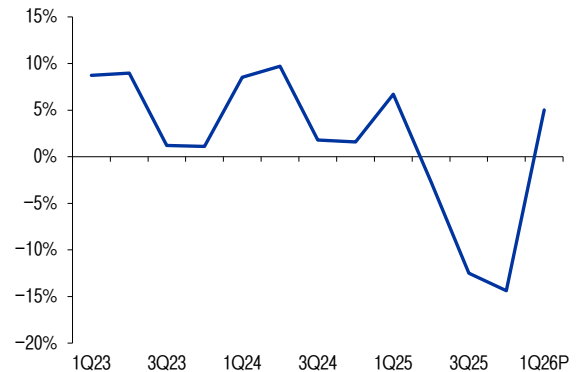
LG생활건강의 1Q26 연결 기준 매출액은 YoY 7.1% 감소한 1조 5,766억원, 영업이익은 YoY 24.3% 감소한 1,078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실적 상회의 주 요인은 면세 부문과 중국 법인의 손익 개선 영향이 컸다. 화장품 사업 매출액은 YoY 12.3% 감소한 1조 5,766억원, 영업이익은 YoY 43.2% 감소한 386억원을 기록했다. 면세 물량 조정 지속에도 예상대비 매출액이 양호했으며, 고정비 절감 효과 등으로 이익이 개선되었다. 중국 또한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 운영으로 예상 대비 빠르게 흑자 전환되었다. 생활용품 사업 매출액은 YoY 0.9%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YoY 7.4% 감소한 254억원을 기록했다(동일 기준). 참고로 닥터그루트, 유시물, 피지오겔, 도미나스, 에이본 등의 브랜드가 화장품 사업부로 이관되었다. 음료 사업부 또한 원가 부담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YoY 6.8% 감소한 438억원을 기록했다.

그림1 LG 생활건강 Beauty 1Q26 주요 브랜드별 매출 비중



자료: LG생활건강,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LG 생활건강 Beauty 부문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LG생활건강, LS증권 리서치센터

아직은 이르기 한다

이번 실적만으로 LG생활건강의 구조적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1분기 호실적은 비용 효율화와 낮아진 기대치에 기반한 결과로 판단된다. 상반기까지는 면세 물량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2분기에도 면세 매출액은 두자릿수 역성장이 예상된다. 중국 또한 천기단 3세대 출시 및 618 행사 대응 관련 마케팅 확대가 예상돼 수익성에 일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는 닥터그루트를 중심으로 LG 브랜드들의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지만, 인수 법인 매출 감소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Whoo 브랜드 외 브랜드력 회복과 주요 채널 및 지역의 매출 성장 전환이 동반되어야 본격적인 밸류에이션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하반기 실적 안정화 여부를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생활용품과 음료 사업부 또한 중동 전쟁에 따른 원가 부담 등이 이어질 수 있다. 1)중국에서의 Whoo 브랜드 충성도 지속력, 2)이에 따른 면세 채널에서의 꾸준한 수요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3)북미 사업 수익성 개선 여부가 중요한 지표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K뷰티 업체들의 경쟁이 덜한 헤어 카테고리에서 동사 브랜드 닥터그루트가 강세라는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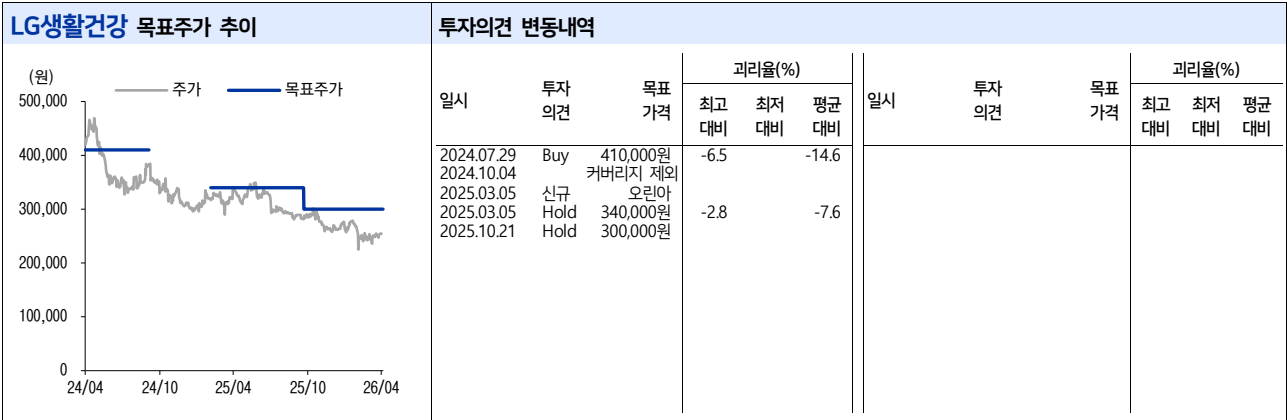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프리미엄 헤어케어 중심의 북미 지역 확장은 향후 화장품 사업부 내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1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5	2026E	2027E	2025	2026E	2027E
코스피	6,599	54,074,678	1.9	25.0	26.3	61.5	158.1	56.6	-	-	-	-	-	-
코스피 대형주	7,023	48,459,123	1.7	26.0	27.1	65.8	176.2	60.4	-	-	-	-	-	-
코스닥	1,192	6,619,918	1.5	7.7	3.7	33.8	66.2	28.8	-	-	-	-	-	-
코스피 중형주	5,099	4,428,271	4.2	19.4	22.7	36.3	78.5	37.0	-	-	-	-	-	-
코스피 소형주	3,023	1,139,438	3.3	11.8	14.1	22.8	36.5	20.1	-	-	-	-	-	-
유통														
코웨이	86,100	60,931	8.2	18.8	3.2	-4.6	-1.8	-0.9	10.1	8.8	7.7	1.7	1.5	1.3
호텔신라	65,500	25,708	15.5	45.4	41.8	33.1	49.0	46.9	-18.2	28.5	21.1	2.2	2.0	1.8
BGF 리테일	132,000	22,815	-1.1	-4.8	8.7	26.8	22.5	26.0	12.2	10.6	9.7	1.8	1.6	1.4
GS 리테일	23,500	19,648	-0.4	6.3	6.1	31.4	58.8	16.9	13.3	10.4	9.2	0.6	0.6	0.6
롯데쇼핑	135,300	38,275	11.1	26.0	61.1	106.6	99.6	86.6	48.7	13.2	11.4	0.3	0.3	0.3
신세계	407,000	38,442	5.9	31.7	27.4	130.7	157.4	64.8	38.0	14.5	12.0	0.8	0.8	0.7
이마트	106,700	29,445	3.2	8.9	17.3	45.4	16.4	31.2	9.1	12.3	9.1	0.3	0.3	0.3
현대백화점	108,900	24,643	15.6	36.5	16.2	33.6	82.1	22.9	10.8	9.7	8.0	0.5	0.5	0.4
SK 네트워크스	5,870	12,989	7.1	12.9	4.8	29.0	38.8	29.9	24.2	21.4	17.7	0.6	0.6	0.6
인터넷														
NAVER	211,000	330,959	-3.0	1.9	-23.3	-17.4	5.2	-13.0	15.4	15.2	13.5	1.1	1.1	1.0
카카오	47,300	209,539	-2.3	0.4	-23.0	-25.5	23.7	-21.3	39.0	31.9	25.5	2.0	1.8	1.6
게임														
크래프톤	265,000	125,632	-0.6	5.8	4.3	-2.2	-28.7	7.7	14.3	12.4	10.5	1.6	1.4	1.3
넷마블	49,650	40,693	0.0	-0.2	-6.0	-9.4	11.1	2.9	13.5	12.5	11.1	0.7	0.7	0.7
NC	270,500	58,277	-0.2	21.9	15.4	22.1	84.9	34.2	16.2	15.6	13.5	1.5	1.4	1.3
펄어비스	58,900	37,842	5.9	-12.9	3.0	72.2	66.2	57.5	-424.5	14.2	26.8	4.6	3.4	2.9
카카오게임즈	12,020	10,792	-3.3	-2.8	-32.3	-25.1	-15.4	-19.3	-8.0	-108.2	19.1	0.8	1.0	1.0
더블유게임즈	61,100	12,937	12.7	22.8	14.2	22.0	8.3	14.0	8.8	7.8	7.2	0.9	0.9	0.8
NHN	41,000	13,429	-0.7	-2.2	26.9	47.2	84.7	41.1	38.0	13.0	9.9	0.9	0.8	0.8
웹젠	12,160	4,207	-1.5	-0.4	-29.8	0.8	-12.0	-5.7	14.7	9.8	8.3	0.5	0.5	0.4
컴투스	32,750	3,960	-2.8	-0.6	-11.3	-3.7	-16.8	12.7	83.0	11.8	8.3	0.4	0.4	0.4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35,300	79,141	2.3	-3.6	-2.5	11.2	8.8	13.2	34.8	26.4	23.2	1.7	1.6	1.6
LG 생활건강	254,000	38,868	2.8	4.1	-3.2	-11.5	-24.7	-1.7	35.2	30.9	19.4	0.8	0.8	0.7
실리콘투	44,000	26,916	-8.1	17.7	-17.0	-3.6	23.1	13.8	15.9	13.3	10.6	6.4	4.4	3.1
아모레퍼시픽홀딩스	27,850	21,294	0.5	-2.3	-3.0	7.5	21.4	3.7	17.1	n/a	n/a	0.7	n/a	n/a
한국콜마	88,700	20,938	0.8	15.8	26.9	16.1	16.9	42.8	20.2	14.2	11.8	2.4	2.0	1.8
코스맥스	210,500	23,891	-3.7	9.6	4.0	4.2	22.0	29.1	41.4	16.7	13.9	4.8	3.6	3.0
브이티	16,960	5,926	10.3	12.1	-17.7	-33.4	-55.7	-3.1	9.9	12.1	9.3	n/a	2.0	1.6
코스메카코리아	81,000	8,651	-4.6	0.3	-16.0	21.3	87.3	21.6	17.6	13.3	11.4	3.3	2.7	2.1
씨앤씨인터내셔널	29,700	4,048	4.6	14.0	-21.9	-22.8	-7.8	0.2	18.0	19.1	12.3	1.9	1.0	1.0
클리오	13,290	2,402	5.5	13.4	0.2	-8.3	-26.5	2.0	17.4	11.6	11.1	n/a	0.9	0.9
한국화장품제조	10,100	2,289	3.9	15.6	1.7	-9.8	-9.2	3.3	n/a	n/a	n/a	n/a	n/a	n/a
아이패밀리에스씨	10,800	1,871	4.0	-1.6	-28.2	-39.9	-48.2	-20.9	7.8	7.7	6.5	1.6	n/a	n/a
마녀공장	15,940	2,613	19.6	34.0	10.8	-4.6	-13.3	16.4	n/a	n/a	n/a	n/a	n/a	n/a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6.4.30 종가 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89.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10.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4. 1 ~ 2026. 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